

보도시점 2024. 3. 19.(화) 16:50 배포 2024. 3. 18.(월) 18:00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 국립극장-자유센터 연계해 공연예술의 중심으로

- 3. 19. 문체부와 (사)한국자유총연맹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립극단을 남산 국립극장으로 이전해 국립극장 50주년 역사성과 상징성 강화
- 서울의 중심 명동, 정동, 서계동에도 복합문화공간 조성·개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3월 19일(화) 자유센터(서울 중구)에서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자유센터 건물을 활용해 ‘남산공연예술벨트’의 한 축이 될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하고자 자유센터 건물을 소유한 (사)한국자유총연맹(총재 강석호)과 공연예술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극장 50주년 맞이해 남산 일대를 한국 공연예술의 중심지 ‘남산공연예술벨트’로 조성

문체부는 지난해 건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극장인 ‘국립극장’과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를 중심으로 ‘남산공연예술벨트’를 조성한다.

(사)한국자유총연맹이 소유한 자유센터 건물은 현재 민간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이를 공연예술의 종합 창작기지인 (가칭)국립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임차할 계획이다. 자유센터 건물 총 2,618평과 대지 1,720평을 활용해 연습실과 공연장, 무대장치 분류센터를 만들고 이를 다양한 분야의 공연단체에 제공해 공연작품의 기획부터 창·제작, 유통, 소비까지 이어지는 공연예술산업의 거점으로 마련한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 자유센터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장기 임차(20년)하고 ▲ 자유센터 시설 활용성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60년대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인 작품인 자유

센터는 대한민국 현대 건축 1세대로 평가받는 김수근 건축가의 초기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국립극단을 국립극장으로 이전해 ‘남산공연예술벨트’의 역사성과 상징성 강화

아울러 2010년 독립 법인화해 국립극장에서 나갔던 국립극단은 다시 국립극장으로 이전해 ‘남산공연예술벨트’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강화한다.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이전은 공연예술과 연극계의 오랜 바람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7일 유인촌 장관과의 현장 간담회에 참가한 연극계 인사들은 “국립극단과 국립극장은 문화적 국격의 상징으로서 국립극단의 국립극장으로의 귀향을 환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립극단은 앞으로 국립극장의 대표 선수로 활동하며 남산 일대 공연창작의 구심점이 되어 민간이 제작하기 어려운 실험적이고 예술적이며 대규모의 다양한 연극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국립극단은 국립극장으로 이전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와 명동, 정동, 서계동 공연시설 연결해 공연예술산업 성장 이끌어

문체부는 ‘남산공연예술벨트’ 외에도 서울의 중심인 명동, 정동, 서계동 등 도심 한가운데에 복합문화공간을 연이어 조성, 개선해 공연예술산업 전반을 성장시킨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은 공연장과 연습실, 복합문화시설 등을 포함해 2028년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늘리기 위한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정동극장과, 명동 한가운데 있는 명동예술극장은 더욱 많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공연장으로 활성화한다.

유인촌 장관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국립정동극장 재건축에 이어 ‘남산공연예술벨트’ 조성계획을 마련해 공연예술산업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았다.”라며, “케이-공연을 전 세계로 확산할 혁신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박소정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홍의석 (044-203-2734)
		담당자	사무관	윤지숙 (044-203-2736)

